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후기 역사학에서 정통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홍여하(洪汝河)의 『동국통감제강』에서였다. 이는 17세기 중엽,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 ‘천하’ 질서의 근본적 동요에 따라 중국 대륙에서 중화(中華)가 공식이 되었다는 의식과 함께, 주자학을 수용하여 도학을 밝힌 조선이 이제 소중화(小中華)로서 중화를 대위(代位)한다는 각성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효종 대의 북벌론을 사상적·정치적으로 지지하면서 점차 조선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 다수의 노론 계통 사상가들도 화이(華夷)의 구분은 지리 경계나 종족에 있지 않다고 보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중화’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자에 의해 확립되고 조선 왕조에서도 그동안 굳게 신봉되었던 화이관, 즉 중국 강역에서만 그리고 중국족에 의해서만 ‘화(華)’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화이관은 크게 변질되었다. 나아가 중국 밖에서도, 비중국족에 의해서도 화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인식은 문화 중심 화이론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역사 인식에서 보면 ‘존조선(尊朝鮮)’ 의식의 성립, 강목체(綱目體) 서술의 강화, 그리고 정통론(正統論)의 조선사 적용 등이 그 반영이었다.

이익(李瀾)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 더욱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질적으로 심화시켰다. 그는 우선 “지금의 중국은 대지 중의 한 조각 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전통적 화이관의 대들보였던 중국 중심의 ‘천하’ 사상을 분쇄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는 중국 중심의 ‘천하’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각기 하나의 독자적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중국 중심 천하관, 즉 유일한 ‘천하’로서의 ‘중국 천하’는 병렬된 개별 국가로 분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선은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였다. 여기에서 이익의 ㉠ ‘삼한 정통론’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통론의 적용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익의 정통론이 북벌론자들이나 노론 계열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중화의 현실적인 대위라는 ‘존아적 자기 인식’에서 발로된 것이었을 뿐 중국 중심의 ‘천하’ 의식은 여전히 반해, 전자는 하나의 독립된 역사적 세계로서의 조선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이익은 중국 중심 ‘천하’의 부정을 전제로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후자는 예악(禮樂)을 기준으로 하되 조선만을 소화 내지 중화로 보았던 데 반해, 이익은 예악이 요(遼)·금(金)·원(元) 등 만리장성 바깥에서도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이익은 중국족의 습속까지 예악에 포함시켰던 노론 계열의 소화 의식과는 달리, 예악을 유교적인 것으로 순화시킴으로써 소화 의식을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수정했던 것이다.

한편 이익은 결과를 가지고 역사의 성패를 논하면 착오가 많다고 판단했으며, 원인이나 객관적 여건을 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하의 제반 역사 운동이나 역사 사실의 전개에서는 시세(時勢)가 기본적 요인이고, 인간 행위는 부차적이며, 도덕적 시비는 천하사의 전개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때 시세는 어떠한 형태의 법칙성도 거부하는 우연적인 것이며, 동시에 특수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제 역사에 개입된 인간 행위의 성패는 시세에 적합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

정된다. 요컨대 그에게 시세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여건·정세로서, 무법칙적으로 운동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희망에 관계없이 역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익은 ㉡ 당시까지의 역사 서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는 이미 결정된 성패를 뒤쫓아가면서 ‘성(成)’은 곱게 꾸미고 ‘패(敗)’는 더럽게 만들며, ‘선(善)’에 대해서는 허물을 숨기고 ‘악(惡)’에 대해서는 장점을 버려서, 그 성패가 마치 ‘우지(愚智)에 의한 성패의 판가름’과 ‘선악응보(善惡應報)’라는 인과 법칙의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역사 속에서의 인간 행위를 선악 이원론이나 현불초(賢不肖) 이원론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역사 서술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 모두가 역사적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편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을 도덕적 선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분리하고, 인간 행위에 대해서만 도덕적 선악의 시비 문제를 가리고자 했다. 즉 인간 행위에 대해서는 선은 선으로 여기고 악은 악으로 여기되, 그 선악이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로부터는 완전히 차단·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과 도덕의 분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실제적 사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화’의 기준도 내면적 규범으로서의 도덕과 인의에서가 아니라 외적·객관적 사회 규범으로서의 예(禮)에서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28. 위 글에서 제시한 정통론의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를 때, ‘천하’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은?

- 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찌 내외의 구분이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각기 자기 사람들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에 편안해 하는 것이니, 화와 이는 한 가지인 것이다.
- ② 내 생각으로는 이른바 중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중(中)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른바 동국이란 것이 어찌하여 동(東)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대저 이미 동서남북의 가운데라면 어느 곳이나 중국 아닌 곳이 없을 것이니, 동국이란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 ③ 어찌 유독 중화에만 군주가 있을 것이며, 어찌 이적(夷狄)에는 군주가 없겠는가. 천지는 넓고 넓어 한 사람이 홀로 주인 노릇 할 수 없으며, 우주는 광대하니 한 사람이 오로지 할 바가 아닌 것이다. 천하는 곧 천하인의 천하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 ④ 비록 이적의 사람들이라도 이적의 행동거지를 버리고, 중국의 도를 사모하고, 중국의 옷을 입고, 중국말을 하고, 중국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중국일 뿐이다. 지금 우리 조선만이 주자학을 중주로 삼고 있으니, 주례(周禮)가 노(魯)에 있는 격이다.
- ⑤ 중국인은 중국을 정계(正界)로 여기고 서양을 도계(倒界)로 여긴다. 서양인은 서양을 정계로 여기고 중국을 도계로 여긴다. 그러나 하늘 아래 땅을 밟은 이상, 다들 처한 곳에 따라 정계라고 하는바, 횡계(橫界)도 도계도 없으며 모두 다 같은 정계인 것이다.

29. 이익의 역사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행위는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의 전개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역사 운동과 역사 사실은 도덕적 가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 ③ 시세의 변화는 인간 행위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④ 인간의 행위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 ⑤ 시세는 선악의 도덕 기준을 벗어나 있다.

30. ㉠의 성립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중국 중심 천하관의 극복
- ② 문화 중심 화이론의 성립
- ③ 명·청 왕조의 교체
- ④ 국경 관념의 변화
- ⑤ 자존 의식의 고양

31. 이익의 역사관으로 ㉡을 읽을 때, 독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 속에도 악이 있고 악 속에도 선이 있는 경우를 숙고한다.
- ② 역사서에 보이는 성패의 결과에서 현실 문제의 추이를 전망한다.
- ③ 오래 전 과거를 다룬 역사서에 서술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의심한다.
- ④ 역사서에 드러나 있는 도덕적 시비가 사실 인식을 방해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 ⑤ 훌륭한 지모가 성공하지 못하고 졸렬한 계획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를 성찰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장주가 조릉(雕陵)의 금지 구역에서 어정거리다가 한 마리 특이하게 생긴 까치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날개의 넓이가 7척은 되었고, 눈의 크기도 1촌이나 되었지만, 장주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밤나무 숲에 앉았다. 장주가 생각했다. “이게 무슨 새인가? 날개가 넓은데도 멀리 가지 못하고, 눈이 커도 알아보지 못하네.” 바지를 걷고 재빨리 다가가 활을 쥐고 엿보았다. 매미 한 마리가 호젓한 그늘을 차지하고 제 몸을 잊고 있는데, 사마귀가 몸을 가리고 후려치려고 하였다. 사마귀는 사냥감을 보고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긴 까치는 그 기회를 틈타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까치도 이익을 보고 참된 자신을 잊고 있

었다. 장주는 가슴이 철렁하여 “아, 개체들이란 본래 서로 얽어매고, 다른 것들 사이에 서로 부르는구나!”라고 탄식하고 활을 버린 채 달아났다. 조릉의 관리자가 쫓아와서 장주를 꾸짖었다. 장주는 집에 돌아온 뒤 3개월 동안 뜰에 나오지 않았다.

(나) 장자가 산 속을 가다가 큰 나무를 보았다. 가지와 잎새가 무성하였다. 벌목하는 자가 그 나무 곁에 멈추었지만 베지 않았다. 장자가 그 이유를 묻자, “쓸모가 없다.”라고 하였다. 장자는 말했다. “이 나무는 재목감이 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다 누릴 수 있구나.” 산에서 나와 옛 친구의 집에 묵었다. 친구는 기뻐하면서 하인 아이에게 거위를 잡아 삶으라고 하였다. 아이가 물었다. “한 마리는 잘 울고, 한 마리는 잘 울지 못하는데 어느 것으로 할까요?” 주인이 말했다.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다음 날 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제 산 속에서 본 나무는 재목감이 못되어서 수명을 다 누렸는데, 지금 집주인의 거위는 재주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자는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로 대처할까. 재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는 그럴 듯하지만 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엽매이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만일 도(道)와 덕(德)을 타고서 노닐면 그렇지 않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사는 일도 없고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면서 때와 더불어 변화할 뿐, 내가 나서서 전적(專的)으로 하는 법이 없다. 때로는 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래가 되기도 하면서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조를 맞추고, 만물이 나오는 근원에서 노닐며 ㉠ 외물을 외물로서 응대해 주고 외물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다면 [物物而不物於物], 어찌 외물이 나를 엽매이게 할 수 있겠는가?”

(다) 얼마 뒤에 자여가 병이 났다. 자사가 방문하자 자여가 말했다. “위대하다, 조물주여! 나를 이처럼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곱어서 등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오관이 있고, 턱은 배꼽에 숨었다. 어깨는 이마보다 높고 목뼈는 하늘을 가리켰다. 음양의 기(氣)가 어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가롭고 근심하는 것이 없었다. 비틀비틀 우물가로 가서 비추어 보고 말했다. “아, 조물주가 또 나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자사가 말했다. “너는 그것이 싫으냐?” 자여가 말했다. “아니다. 내가 어찌 싫어하겠는가? 점차 나의 왼팔을 변화시켜 닭으로 만들면 나는 시간을 알릴 것이요, 점차 나의 오른팔을 변화시켜 탄환을 만들면 나는 그 탄환으로 올빼미구이를 구할 것이요, 점차 나의 꿈무늬를 변화시켜 바퀴를 만들고 신(神)을 변화시켜 말로 만든다면 나는 그대로 타고 달리리니 멩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명을 얻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요, 생명을 잃는 것도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때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의 변화에 순응하여 처한다.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은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이 옛 시대에 말했던 ㉡ 현해(懸解: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장자(莊子) -